

조선시대에 간행된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nted Books of Great Learn(大學) Caved by Old Years in Chosun Dynasty

宋 日 基(II-Gie Song)* · 鄭 王 根(Wang-Kun Jung)**

<목 차>

- | | |
|-----------------|------------------|
| I. 緒言 | 2. 板本概要 |
| II. 大學의 受容 및 展開 | IV.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 |
| 1. 受容 | 1. 京畿地域 |
| 2. 展開 | 2. 慶尙地域 |
| III. 干支本 大學의 板本 | 3. 其他地域 |
| 1. 板本現況 | V. 結言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간행된 대학의 판본 중에 간지로 간기가 기재된 현존본을 대상으로 그 간행연도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사대상은 한문본 13종과 연해본 5종으로 모두 18종의 판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지역, 판종, 간행처, 간지, 추정연도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 대학, 간지본 대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not only printed books of Great Learn(大學) published in Chosun dynasty but also existing records concerned with it as well as analyze them typically and systematically. totally 18 kinds of book of Great Learn still remain. Among them 13 kinds of book are written in Chinese(漢文本) and 5 kinds of book are written in Korean(諺解本).

Key Words : Great Learn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wissenschaft@hanmail.net)
· 접수일 : 2004. 11. 20 · 최초심사일 : 2004. 11. 25 · 최종심사일 : 2004. 12. 10

I. 緒言

조선은 주희(朱熹, 1130~1200)의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은 나라이다. 그리하여 유학은 교육 및 관료등용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많은 유교서적이 조선시대에 간행 유통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서(四書)는 성리학의 기본 이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해 작업이 이뤄졌으며, 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등 여러 형태의 사서가 국가기관인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의 감영(監營), 서원, 사찰, 그리고 심지어 조선후기에는 민간출판업자에 의해서까지 끊임없이 간행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사서의 간행 및 유통이 빈번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최근 조선시대에 간행된 논어(論語) 및 대학(大學)의 판본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선행의 연구가 대부분 사서가 언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으며, 어떤 전개과정을 거쳐 유포되었는가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만 있을 뿐 사서의 판본 자체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학 판본에 관해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들을 조사하여, 이를 유형별·형태별·계통별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본 바 있었다.

그 결과, 현존하는 대학의 제판본은 한문본 45종과 언해본 20종 등 모두 65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 중 한문본은 서명별로는 12종의 판본이, 그리고 언해본은 4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 활자본은 모두 20종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 한문본이 14종, 언해본이 6종으로, 주로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학의 제판본을 계통별로 분석한 결과, 집주본과 언해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주본의 경우 1413년 명나라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大學章句大全』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직접 복각한 '明板覆刻' 계열과 위의 책을 저본으로 하되 조선에서 주조한 활자로 간행한 '活字本' 계열 등 두 종류의 계열이 있으며, 언해본의 경우는 1590년에 교정청에서 경서자로 인출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는 언해본 계열의 판본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

이처럼 이 『大學章句大全』과 『大學諺解』의 경우는 대학 판본 중에 가장 활발한 간행 및 유통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판본의 말미에는 상당수가 간지(干支)로만 간기가 판각되어 있어, 그 동안 이를 서기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간년 추정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상이 여러 기관의 고서목록 및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서 가운데 비교적 분량이 많지 않아 단권(單卷)으로 간행되어 비교적 조사가 용이한 대학 판본을 대상으로 하고, 간혹 중용의 판본과도 상호 비교하여 정확한 간행연도를 추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정왕근,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3) 참고

II. 大學의 受容 및 展開

1. 受容

대학이란 책이 언제 국내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문헌상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고려 말기에 성리학의 본격적인 수용과 더불어 성리학의 사상을 담고 있는 성리학서 가운데 하나로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런데 대학은 본래부터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던 책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 대학은 원래 예기(禮記)란 책의 제 42번째에 해당하는 하나의 편(篇)이었는데, 이를 송대(宋代)의 유학자들이 예기에서 중용(中庸)과 함께 분리해 내고 여기에 論語와 孟子를 더해 사서(四書)라는 경전을 만듦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언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에 관한 물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다. 즉, 예기의 한 편으로서의 유입된 시기와 독립된 지위를 갖는 경전으로서 유입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이중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국내에 유입된 시기를 크게 예기의 한편으로 수입된 때와 독립된 경전으로서 수입된 때로 나누어 살펴보되, 독립된 경전으로서의 대학에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송나라 때 주희(朱熹)가 사서를 정립함으로써 대학이 경학사(經學史)에서 갖게 되는 의미는 예기의 한 편으로 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르며, 또한 조선시대에 유통된 대부분의 대학 판본 역시 이러한 단행본으로서의 대학이기 때문이다.

먼저 예기의 한 편으로서 유입된 시기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인 『三國史記』에 신문왕 6년(686)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기와 문장(文章)을 청하니 측천무후(則天武后)가 담당 관청에 명하여 길흉요례(吉凶要禮)를 베끼고 문관사림(文館詞林) 가운데 모범으로 삼을 만한 글을 골라 50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²⁾. 또한 동왕(同王) 2년(682)에 국학을 세우고³⁾ 원성왕 4년(788)에 인재등용을 위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⁴⁾, 이때 독서삼품이란 『春秋左氏傳』과 『禮記』 또는 『文選』을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論語』와 『孝經』에 밝은 사람을 상품(上品)으로 하고, 『曲禮』, 『論語』, 『孝經』을 읽은 사람을 중품(中品)으로 하였으며, 曲禮와 孝經을 읽은 사람을 하품(下品)으로 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여기에서도 예기가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유신 열전⁵⁾이나 김영윤 열전⁶⁾ 등에서도 예기의 한 구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2)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6年.

3) 『三國史記』 卷38, 雜誌 第7, 職官 上.

4)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第1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4호)

에 예기가 유입된 것은 삼국시대로 그 시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서(四書)의 일부로서 대학이 유입된 시기는 대개 고려말로 추정된다. 이는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안향(安尙)에 의해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되고, 후에 백이정(白頤正)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던 시기에 성리학의 주요경전인 사서가운데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이정은 고려말의 문신으로 충선왕(忠宣王)을 따라 원나라 수도에 10년간 머물면서 그곳의 문사들과 교류하며 당시의 학풍인 성리학을 배웠으며, 고려로 돌아올 때 성리학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⁷⁾ 그의 성리학은 이제현(李齊賢)과 박충좌(朴忠佐) 등에게 전수되었고, 이제현의 장인인 권부(權溥)는 四書集註를 간행하였다.⁸⁾ 따라서 성리학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이 시기에 성리학의 주요경전들 가운데 하나인 사서가 국내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뒷받침 해 줄 만한 문헌상의 대학에 관한 기록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목왕(忠穆王) 즉위 원년인 1344년에 이제현이 도당(都堂)에서 경연을 열 것을 건의하면서, 효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강의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격물·치지·성의·정심의 도(道)를 익히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기록과⁹⁾ 둘째, 공민왕 16년에 성균관 제주(祭酒) 임박(林樸)이 숭문관(崇文館) 옛터에 성균관을 증건할 것을 건의하고, 이에 국학을 처음으로 오경재(五經齋)와 사서재(四書齋)로 나누었다는 기록과¹⁰⁾ 셋째, 사서는 1344년에 과거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¹⁾ 이 외에도 공민왕 때 윤택(尹澤)이 신덕수(愼德秀)의 『大學衍義』와 최승로(崔承老)가 성종(成宗)에게 올린 글을 진강(進講)했다는 기록과¹²⁾ 공양왕(恭讓王)이 貞觀政要를 보고자 하여 정몽주(鄭夢周)에게 이를 강의하라고 명하자 윤소종(尹紹宗)이 大學衍義를 보라고 권하여 그렇게 했다는 기록 등이 있다.¹³⁾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학은 이미 삼국시대에 禮記의 한편으로서 그 내용이 이미 국내에 소개되었지만, 경전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국내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과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三國史記』卷41, 列傳 第1, 金庾信 上.

6) 『三國史記』卷47, 列傳 第7, 金令胤.

7) 李齊賢, 『樸翁稗說』, 前集2, 國家伐叛耽羅, 朴龍雲, 高麗時代史下, (서울: 一志社, 1988), p. 640 재인용.

8) 『高麗史』卷107, 列傳 第20, 權溥.

9) 『高麗史』卷110, 列傳 第23, 李齊賢.

10) 『高麗史』卷第七十四, 志, 第二十八.

11) 도현철, 『고려시대 유교의 전개와 성격(강만길 외 편, 한국사, 6, 중세사회의 성립 2)(서울: 한길사, 1994), p.281.

12) 『高麗史』卷106, 列傳 第19, 尹諧.

13) 『高麗史』卷120, 列傳 第33, 尹紹宗.

2. 展開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유입된 대학은 이후 조선시대를 통해 중요한 유교경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삼았기 때문에 성리학의 주요경전인 사서의 간행에 관해서도 건국 초기부터 국가적인 관심이 있었으며, 조선시대 내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사서에 주석 및 도해작업이 행해졌으며, 많은 판본들이 간단없이 간행 유포되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록상으로 가장 시기가 빠른 대학 판본은 고려 말 문신인 권부가 간행하여 유포시켰다는 주희의 『四書集註』인데, 이 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 판본을 제외하고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대학 판본에 관한 다른 기록이나 실물은 남아 있지 않으며, 지금 남아 있는 대학 판본들은 모두 조선시대에 간행되어서 전하고 있는 것들이다.

조선시대에 간행 유통된 대학 판본의 대부분은 1415년에 명나라에서 간행된 영락판(永樂板)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大學章句大全』의 복각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사서오경대전은 세종 연간에만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수입되었으며, 또 그 시기 역시 명나라에서 사서오경대전이 간행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건국 초기에 사서의 간행 유포에 국가적인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¹⁴⁾

세종 연간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사서오경대전이 수입되긴 했지만, 이 판본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간행 유포되는 것은 두 번째 수입인 세종 8년(1426년)에 수입된 판본부터이다. 세종은 이 책들을 널리 유포시키기 위해 수입된 바로 이듬해인 1427년에 영남감영, 호남감영, 강원감영에 각각 사서오경을 나누어주고 각 도에서 그 판본을 저본으로 판자(板子)를 새기게 하였다. 이 중 사서는 강원감영에서 판각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로 2년 후인 1429년 4월에 강원감영에서 사서대전 50권을 인출하여 중앙으로 보내왔다.¹⁵⁾ 또한 강원도에서는 사서대전을 세 곳에서 나누어 판각하여 각각 누각을 짓고 그 판자(板子)를 분류, 소장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으며, 혹시 닳아서 못쓰게 되는 판자가 있으면 즉시 고치거나 새로 판을 새기게 해서 수령 교대 시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할 것을 시행하는 한편, 같은 방법을 다른 감영에서도 그대로 시행케 할 것

14) 세종 연간에 세 차례에 걸쳐 수입된 사서오경대전 판본의 수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종 원년인 1419년에 성조(成祖)가 조선 태종의 서자인 비(裨)를 매우 총애하여 비가 북경에서 조선으로 돌아갈 때 『性理大全』과 함께 이 <사서오경대전>을 특별히 하사한 것이 유입된 것이며, 『世宗實錄』, 卷6, 世宗1年12月, 丁丑條) 두 번째는 세종 8년 11월에 김시우(金時遇)가 북경에 사신(使臣)으로서의 수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명나라 선종(宣宗)이 내려준 것으로, 이는 김시우의 사행(使行)에 앞서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세종이 사서오경대전과 『性理大全』 및 『宋史』 등의 서적을 요청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世宗實錄』, 卷6, 世宗1年12月, 丁丑條) 세 번째는 세종 15년 12월에 박안신(朴安臣)이 귀국할 때 가져 온 것으로, 이는 세종이 명나라 선종에게 우리나라 자제들이 북경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선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이 <사서오경대전>을 『性理大全』, 『通鑑綱目』과 함께 내려 준 것이다. 『世宗實錄』, 卷62, 世宗15年12月 壬戌條.

15) 『世宗實錄』, 卷43, 世宗11年4月, 丁酉條.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4호)

을 건의하였다.¹⁶⁾ 중앙 관청에서는 이렇게 인출된 판본을 간행·반사(頒賜)하니 여러 지방에서 이 판본을 저본으로 다시 복각에 재복각을 거듭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판본들이 간행·유통되게 되었다.¹⁷⁾

한편, 조선시대에는 대학 판본의 간행·유포 노력과 함께, 대학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문본 대학의 국역화 작업인 구결(口訣)과 언해(諺解)이다. 대학을 포함한 경서(經書)에 구결을 붙이는 작업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행해져왔는데, 대학의 경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시작되어서 성종 때까지 행해졌다.

대학의 구결작업에 관한 제반기록들을 각 왕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종은 1448년에 집현전 직제학인 김문(金汶)에게 사서를 번역하도록 명령하고 특별히 계급까지 승진시켜 발탁 등용하려고 했는데, 김문이 중풍으로 돌연사하자 집현전 학자들의 추천을 받아 당시 상주의 관리이던 김구(金鈞)를 불러들여 이 번역 작업을 이어가도록 명령했다.¹⁸⁾ 그리고 세조는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구종직(丘從直) 등에게 명령하여 사서오경을 나누어주고, 옛 것을 고찰하고 지금에 증명하여 구결을 정해 올리게 했으며¹⁹⁾, 또한 이에 앞서 재추(宰樞)에게 나누어 명령하여 사서오경 및 左傳 의 구결을 내놓게 하고는 이를 여러 유신(儒臣)들에게 교정하게 했다.²⁰⁾ 또한 이 외에도 당시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였던 홍응(洪應)에게 구결을 정하도록 명령했다.²¹⁾ 또한 성종은 『庸學口訣』, 『春秋』 등의 서적을 편찬하기 위해 별도로 국(局)을 설치했었지만, 1482년에 부제학(副提學) 유윤겸(柳允謙)이 가뭄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나쁘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폐지했다.²²⁾

이처럼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대학의 구결작업은 성종 이후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데, 이후 대학에 대한 국역작업은 선조에 구결보다 한층 더 이해의 정도가 높은 언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선조는 당시의 사서오경에 대한 구결·언해가 학자마다 서로 다르고 확정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1573년에 경연(經筵) 석상에서 유희춘(柳希春)에게 사서오경에 대한 토(吐)와 석(釋)을 모두 상정(詳定)해서 올릴 것을 명령하는데, 유희춘은 자기의 역량이 적은데다 임무가 무겁다는 이유로 이를 사양하고 이 일에 대한 책임자로 이이(李珣)를 추천한다.²³⁾

그러나 울곡이 언해작업을 채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되자 선조는 울곡이 죽은 다음 해인 1585년

16) 『世宗實錄』, 卷39, 世宗10年正月, 己酉條.

17)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사서에 관한 기록들은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 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2), pp.68~73 참조.

18) 『世宗實錄』, 卷119, 世宗30年3月, 戊戌條, 癸丑條.

19) 「崔文靖公碑銘」, 『徐四佳全集』 補遺 1.

20) 『世祖實錄』, 卷38, 世祖12年2月, 辛巳條.

21) 「經書小學口訣跋」, 『太虛亭集』 卷2.

22)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 歷代著述, p. 853.

23) 『宣祖實錄』 卷10, 宣祖9年4月, 丁卯條.

에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고 이산해(李山海) 등 교정청 관원 31명에게 사서의 언해를 명령하여, 1588년에 완성을 보고 2년 후인 1590년경에 이를 간행하게 한다. 이렇듯 고려말부터 국내에 유입되던 대학은 세종 연간에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책이 수입되어 간행·광포(廣布)되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꾸준한 구결·언해 등의 국역화 과정을 거쳐 선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완성을 보게 되는 등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유통되고 이해되었다.

Ⅲ. 干支本 大學의 板本

대학의 판본류로는 세종때 명나라로부터 입수한 호광이 대전(大全)한 명판(明板)복각계통의 한문본 판본이 각 지방의 감영에서 개판되어 널리 유포되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조때 언해된 언해본 또한 지방감영과 상업적 목적에서 출판 유통되었다. 그런데 이들 판본에는 대부분 간기(刊記)를 새겨 놓았으나, 기재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중국의 연호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갑자 간지(干支)로만 기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연대추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간지본 대학판본에 대해서 기존의 여러 주장을 검토하고 또 실제로 수집된 판본들을 비교함으로써 간지본 대학판본의 간행년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간지 간기추정에 있어 그 범위를 대학 판본에 한정시키지 않고 중용의 판본들 중에서도 간지로 간기가 기재된 판본까지 포함해서 간년추정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과 중용은 사서(四書) 가운데서도 비교적 분량이 적어 함께 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로 더러는 대학 판본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간행기록들이 중용 판본에는 표기되어 있는 사례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판본 가운데는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것도 있어서 하나의 간기를 추정하면 서로 같은 간지 간기가 있는 판본의 간행연도까지 함께 추정되므로 서로 간의 비교 및 검증에 상호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 판본만을 대상으로 간기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중용 판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간행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결과 면에서는 훨씬 더 유용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 板本現況

필자에 의해서 현재까지 조사된 대학과 중용 판본 가운데 간지(干支)로 간기가 새겨진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干支本 大學 및 中庸의 板本現況

地域	刊行處	干支 刊記	大學		中庸	
			漢文本	諺解本	漢文本	諺解本
京畿	成均館	丙寅四月	○		○	
	成均館	己酉十月	○			
	成均館	庚戌三月			○	
	北漢山城	丙申三月			○	
	北漢山城	壬戌初秋			○	
	內閣	庚辰新刊	○	○	○	○
	武橋	甲戌孟秋	[○]		○	
慶尙	慶尙監營	乙丑四月	○		○	
	慶尙監營	庚辰七月	○		○	
	慶尙監營	戊午五月	○		○	
	慶尙監營	戊辰五月			○	
	慶尙監營	戊子新刊	○	○	○	○
	慶尙監營	辛丑五月	○			
	慶尙監營	丁巳正月			○	
	慶尙監營	壬戌季春		○		○
北韓	咸興府	萬曆四十	[○]		○	
	咸鏡監營	丙午孟秋	[○]	○	○	○
	寧邊府	乙丑四月	○		○	
全羅	河慶龍	庚午仲春	○	○	○	○
合計		39종	10+3종	5종	16종	5종

* 위의 표에서 각괄호로 처리한 동그라미([○])는 실제 판본에는 간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형태사항이나 글자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 시기에 간행된 다른 판본과 같은 혹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판본이다.

위의 표와 같이 현존하는 대학 및 증용 판본 가운데 간지로 간지가 새겨진 판본은 총 36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학에서 한문본 판본인 『大學章句大全』이 10종, 언해본 판본인 『大學諺解』가 5종, 그리고 증용에서 한문본 판본인 『中庸章句大全』이 16종, 언해본 판본인 『中庸諺解』가 5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본 외에도 『大學章句大全』 가운데는 간지 간지가 있는 다른 판본과 같은 시기 혹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3종 더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판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간지본(干支本)의 연대 추정은 전체 39종의 대학 및 증용의 제판본 가운데 18종의 대학판본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板本概要

앞서 살펴보았듯 간지 기재방식으로 간기가 수록된 대학 판본으로는 주로 『大學章句大全』과 『大學諺解』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 책의 제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大學章句大全

조선시대에 유통된 대학의 판본 가운데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고 있는 판본인 『大學章句大全』은 크게 명판(明板)복각계통과 활자본계통, 그리고 기타 목판본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기 명판복각계통은 15종, 활자본계통은 9종, 그리고 기타 목판본은 5종이 있다. 명판복각계통은 명나라 영락연간에 만들어진 사서오경대전을 조선 초 세종 때 수입하여 복각한 것들로서, 이는 다시 명판과 형태가 가까운 복각본과 후에 복각에 재복각을 거듭하면서 초기 명판에서 형태가 많이 멀어진 재복각본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²⁴⁾

명판과 형태가 가까운 판본의 특징은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이나 혹은 직후에 만들어진 판본으로 보이는데, 판심에는 모두 흑구(黑口)와 본문에 표점(標點)이 표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명판재복각’본들 가운데서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판본은 총 8종이 있으며, 여기에 각각 함흥부와 함경감영에서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종의 판본을 추가하면 명판복각계열의 간지본 판본은 모두 10종이 된다.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판본으로는 ‘을축사월영영중간’(乙丑四月嶺營重刊), ‘경진칠월영영중간’(庚辰七月嶺營重刊), ‘무오오월영영중간’(戊午五月嶺營重刊), ‘신축오월영영중간’(辛丑五月嶺營重刊) 등의 간기가 있는 4종의 판본이 있으며, 성균관에서는 ‘병인사월성균관중간’(丙寅四月成均館重刊), ‘기유시월성균관개간’(己酉十月成均館開刊)의 간기가 있는 판본 2종, ‘을축사월영변부개간’(乙丑四月寧邊府開刊) 판본 1종, 그리고 방각본인 1810년의 ‘하경용장판’(河慶龍藏板)본 1종, 그리고 여기에 만력40년에 함흥부에서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 1종과 병오년에 함경감영에서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 1종이 있다.

활자본 계통의 정유자복각 중에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판본은 모두 2종이 있는데, 각기 ‘경진신간내각장판’(庚辰新刊內閣藏板)과 ‘무자신간영장판’(戊子新刊嶺營藏板)의 간기가 표기되어 있다. 명판복각계통과 활자본 계통 외에도 판을 새로 새긴 1종의 판본이 있으나, 이 판본에는 직접적으로 간지로 간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갑술맹추무교신간’(甲戌孟秋武橋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중용판본과 판식이라든지 기타 형태적 특징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같은, 혹은 비슷

24)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정왕근, 朝鮮時代에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3), pp.26~32 참조.

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大學章句大全』 가운데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것과 간기는 없으나 다른 간지 간기본들과 함께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은 명판복각계열 10종, 정유자 복각본 2종, 신각본(新刻本) 1종 등 모두 13종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2) 大學諺解

언해본 대학판본인 『大學諺解』는 1590년경 교정청에서 경서자(經書字)로 처음 간행된 후 활자본 2종, 목판본 14종이 인출되었다. 활자본으로는 경서자본, 무신자본(戊申字本) 등이 있는데, 무신자본은 1695년의 내사기가 있는 판본과 1744년경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 등 두 가지가 있다. 이 외에도 현존하지는 않지만 정유자(丁酉字)와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로 찍은 판본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목판본 가운데 이 2종의 활자로 찍은 판본을 복각한 판본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목판본은 크게 훈련도감자 복각본 5종, 정유자 복각본 3종, 무신자 복각본 3종, 그리고 활자를 복각하지 않은 목판본 3종으로 구분된다.²⁵⁾ 이 중에서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판본은 모두 5종으로 정유자 복각본 2종, 훈련도감자 복각본 1종, 무신자 복각본 1종, 그리고 신각본 1종 등이 있다.

정유자복각본은 ‘경진신간내각장판’(庚辰新刊內閣藏板)과 ‘무자신간영장판’(戊子新刊嶺營藏板)이라는 간기가 표기되어 있으며, 각각 내각과 경상감영에서 개판(開板)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훈련도감자 복각본은 ‘병오맹하함경감영개간’(丙午孟夏咸鏡監營)이라는 간기가, 그리고 무신자 복각본은 ‘세경오중춘개간전주부하경용장판’(歲庚午仲春開刊全州府河慶龍藏板)이라는 간기가 각각 새겨져 있다. 그리고 활자본을 복각하지 않은 새로운 판식의 목판본도 1종이 있는데, ‘임술계춘영영중간’(壬戌季春嶺營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판본이 그것이다. 이처럼 언해본 대학판본인 『大學諺解』 가운데서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판본은 정유자복각본 2종, 훈련도감자 복각본 1종, 무신자복각본 1종, 신각본 1종 등 모두 5종의 판본이 있다.

IV.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

이 장에서는 간지본 대학 판본을 간행지역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역별 구분은 판본의 조사를 바탕으로 크게 경기지역, 경상지역, 기타지역 등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25)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정왕근, 朝鮮時代에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3), pp.37~40 참조.

지역별로 간행처, 간행연도, 간행된 판본, 그리고 간행연도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지본 대학 판본의 간행지역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干支本 大學의 刊行地域別 板本現況

區分	板種	刊行處	干支	板式의 特徵				
				邊欄	半郭(cm)	行字數	魚尾	
漢	京畿	明板再覆刻	成均館	丙寅	雙邊	22.6×18.5	10行22字	上下2葉花紋魚尾
		明板再覆刻	成均館	己酉	雙邊	24.8×18.6	10行22字	上下2葉花紋魚尾
		丁酉字覆刻	內閣	庚辰	單邊	24.3×17.2	10行18字	上2葉花紋魚尾
		新刻	[武橋]	[甲戌]	單邊	16.5×13.5	10行22字	上2葉花紋魚尾
文	慶尙	明板再覆刻	慶尙監營	乙丑	雙邊	22.8×18.3	10行22字	上下2葉花紋魚尾
		明板再覆刻	慶尙監營	庚辰	雙邊	22×18.3	10行22字	上下3葉花紋魚尾
		明板再覆刻	慶尙監營	戊午	雙邊	23×18.8	10行22字	上下2葉花紋魚尾
		明板再覆刻	慶尙監營	辛丑	雙邊	23.1×18.1	10行22字	上下2葉花紋魚尾
		丁酉字覆刻	慶尙監營	戊子	單邊	23.2×17	10行18字	上2葉花紋魚尾
本	北韓	明板覆刻	[咸興府]	[萬曆40]	雙邊	24.2×16.4	10行22字	大黑口,內向黑魚尾
		明板再覆刻	[咸鏡監營]	[丙午]	雙邊	27.4×18.4	10行22字	上下2葉花紋魚尾
		明板再覆刻	寧邊府	乙丑	雙邊	25.7×18.1	10行22字	上下2葉花紋魚尾
全羅	明板再覆刻	河慶龍	庚午	雙邊	23×18.1	10行22字	上下2葉花紋魚尾	
諺解本	京畿	丁酉字覆刻	內閣	庚辰	單邊	24.6×17	10行17字	上2葉花紋魚尾
		慶尙	丁酉字覆刻	慶尙監營	戊子	單邊	23×16.8	10行17字
	全羅	新刻	慶尙監營	壬戌	雙邊	23.8×16.5	12行23字	上2葉花紋魚尾
		北韓	訓練都監字覆刻	咸鏡監營	丙午	雙邊	25.5×18.6	10行19字
全羅	戊申字覆刻	河慶龍	庚午	雙邊	21.7×17	10行17字	上下2葉花紋魚尾	

1. 京畿地域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3곳의 간행처에서 5종의 판본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간행처 별로 살펴보면 성균관에서 『大學章句大全』 2종, 내각에서 『大學章句大全』, 『大學諺解』 각 1종, 그리고 무교에서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大學章句大全』 1종이 있다.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간지본의 특성은 주로 성균관과 내각에서 간행된 판본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적인 대학 판본에 있어서는 출판업무를 담당했던 교서관 등의 기관에서 간행된 판본이 많이 있으나, 간지 간기본만을 놓고 볼 때는 중앙관서에서는 성균관과 내각에서 간행한 판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간지 판본에 관한 각각의 간년추정은 다음과 같다.

1) 병인사월성균관중간(丙寅四月成均館重刊)

이 간지 간기는 『大學章句大全』 뿐 아니라 『中庸章句大全』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판본은 숙종 12년인 1686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산기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中庸章句大全』(1-154)에 ‘강희이십오년십이월...’(康熙二十五年十二月...)이라는 내사기(內賜記)가 있기 때문이다. 강희 25년은 1686년이고 또 이 해의 간지가 병인(丙寅)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판본은 이 해에 성균관에서 간행되어 같은 해에 내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판본은 글자의 형태나 일반적인 판식(板式)의 특징이 매우 조잡하며, 비록 본문에 구두점이 찍혀 있어 초기 명판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나 판본자체로 보면 초기 명판에서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존하는 판본을 살펴보면 더러는 글자를 더 이상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낡은 판자(板子)를 사용하여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1686에 중간(重刊)한 이 판본이 이 판자를 사용해 찍은 마지막 판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기유시월성균관개간(己酉十月成均館開刊)

이 간기는 규장각장 『大學章句大全』(규중551)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판본의 간기는 1789년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에 관한 기존의 간년추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천혜봉의 『韓國典籍印刷史』에 나오는 1789년이라는 언급이며, 다른 하나는 규장각 도서목록에 나와 있는 1849년 추정이 그것이다.²⁶⁾

천혜봉은 『韓國典籍印刷史』에서 조선시대 중앙관서의 전적인쇄에 관해 설명하면서 보통 일반 전적은 교서관이나 전교서(典校署)가 담당하고 있으나, 특정주제 분야의 서적은 담당 관서에서 직접 개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여러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성균관에서 기유년(정조 13, 1789)에 간행한 『大學章句大全』을 들고 있다.²⁷⁾ 그러나 왜 이 판본이 이 시기에 간행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 시기로 간행연도를 추정했는지는 이에 앞서 성균관에서 중간했던 또 다른 판본인 ‘병인사월성균관중간’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입증될 수 있을 것 같다.

26)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서울 : 범우사, 1990), pp.150~153.

서울대학교도서관,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서울 : 동 도서관, 1982), p.56.

27)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서울 : 범우사, 1990), p.150.

병인년 4월에 중간한 성균관본은 앞서 언급했듯이 판자가 너무 낡아서 더 이상 그 판을 이용해서 『大學章句大全』을 간행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낡은 판을 대신해 새로 판을 하나 새겨서 인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나오게 된 것이 기유년 10월에 간행한 성균관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기유년에 신간된 이 판본은 초기 명판의 특징인 본문에 구두점이 찍혀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는 아마도 전란이 끝나고 남아 있던 명판 복각본을 저본으로 새로 판을 새기지 않았나 추측된다. 또 다른 추정 간행연도인 1849년은 너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천혜봉의 주장에 따라 이 판본의 간행연도를 1789년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3) 경진신간내각장판(庚辰新刊內閣藏板)

이 간기는 대학의 한문본과 언해본 판본뿐 아니라 중용의 한문본과 언해본 판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이 간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여러 자료들에서 1820년으로 추정해왔으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기존의 여러 주장을 참고하여 이 판본이 1820년에 정유자본 대학, 중용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된 판본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4) 갑술맹추무교신간(甲戌孟秋武橋新刊)

이 간기가 있는 판본은 고려대 소장의 『中庸章句大全』(인수문고 1-90) 1종이 있으며, 비록 간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판의 형태사항이나 글자의 새김 등을 비교하였을 때 『大學章句大全』역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수진본(袖珍本)으로 조선 후기에 간행됐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19세기의 간지(干支) 가운데 갑술(甲戌)을 찾아보면, 1814, 1874, 1934 등이 있다. 이 중에서 1934년에는 이미 서양의 활자 인쇄술이 들어온 이후이므로 이 때 굳이 목판을 이용해서 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1814년은 시기가 너무 이르므로 1874년에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이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中庸章句大全』이 1913년에 경성의 신구서림에서 인출되는데, 시기적으로도 1874년의 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慶尙地域

경상지역에서는 경상감영 한 곳에만 무려 7종의 간지본 대학 판본을 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지역에서 간행된 간지본 판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경상지역에서 간행된 모든 간지본 판본은 경상감영 한 곳에서만 간행되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이들 판본이 간행된 시기가 대략 1700년도 중반부터 시작하여 1800년도 중반까지 약 100여 년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감영들과 달리 유독 경상감영에서 대학을 포함한 사서의 간행이 잦았으며 또한 그 시기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나, 아무튼 지방의 감영들 가운데서는 경상감영이 다른 지역의 감영보다 적극적으로 사서의 간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현존하는 실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간지 판본에 관한 간행연도 추정은 다음과 같다.

1) 을축사월영영중간(乙丑四月嶺營重刊)

이 간기는 전남대 소장의 『大學章句大全』(112대91조) 뿐 아니라 『中庸章句大全』(113대11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판본에 관한 기존의 간년추정은 크게 1805년과 1745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유탉일은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목기본(木記本) 칠서(七書)의 간행연도를 고찰하면서 경상감영에서 인출된 대학과 중용 판본의 간행연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는 이 연구에서 ‘을축사월영영중간(乙丑四月嶺營重刊)’이라는 목기가 있는 판본의 간행연도를 1805년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⁸⁾

한편, 조정화와 안현주는 이 판본이 1745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조정화는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서적들에 관한 연구에서 영영(嶺營)에서 간행한 번각본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 판본을 영조 21년(1745년)에 판각한 것으로 추정해 놓았지만 그 근거는 분명치 않다.²⁹⁾ 필자는 조정화 등의 간년 추정에 따라 이 판본이 1745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경상감영에서 개판한 판본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 판본의 간행시기가 60년 더 늦은 1805년이 된다면 1808년에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진유월영영중간’(戊辰六月嶺營重刊)의 간기가 있는 『中庸章句大全』과 간행연도 차이가 3년밖에 나지 않게 되므로 간행시기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이 판본이 1805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다. 다만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다른 판본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1805년보다는 1745년에 간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필자는 1745년으로 간행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28) 유탉일, “嶺營刊行 木記本七書 刊年攷,” 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부산: 세종문화사, 2001), pp.115~125.

29) 조정화, “朝鮮朝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書誌的研究,” 書誌學研究, 제2집(1987), pp.298~300.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2), pp.30~31.

30) ‘무진유월영영중간’(戊辰六月嶺營重刊)이란 간기가 나타나는 판본은 『中庸章句大全』(계명대 180.82호 광중) 1종뿐이다. 이 판본은 대략 1808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할 무오년(1798) 5월에 간행된 『中庸章句大全』과 글자의 형태나 기타 형태사항들이 비슷하며, 또 이보다 60년이 늦은 1868년으로 간행연도를 추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이다.

2) 경진칠월영영중간(庚辰七月嶺營重刊)

이와 같은 간지 간기가 있는 판본은 계명대 소장의 『大學章句大全』(180.81호광ㄷ)과 영남대 소장의 『中庸章句大全』(148.2중용ㄱ)이 각각 1종씩 있으며, 이 판본에 관한 기존의 간년추정은 없다.

이 판본은 1760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이 판본의 권말에 쓰여진 ‘경진 칠월영영중간(庚辰七月嶺營重刊)의 글씨체가 이보다 15년 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을축사월영영중간(乙丑四月嶺營重刊)본의 글씨체와 똑같아서 동일인이 썼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사람이 글씨를 썼다면 1760년 보다 60년이 빠르거나 늦은 1700년이나 1820년에 썼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으므로 1745년 보다 15년이 늦은 1760년에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을축사월영영중간’본이 1805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판본의 간행연도 역시 1820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을축년 4월에 찍은 영영본(嶺營本)과 경진년 7월에 찍은 판본은 개판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760년으로 추정된다.

3) 무오오월영영중간(戊午五月嶺營重刊)

현재 이 간기가 있는 판본은 규장각과 원광대 2종이 있는데, 『大學章句大全』(규중535)과 『中庸章句大全』(148.2×816ㄷ)이 그것이다. 이 판본의 간행연도에 관해서는 크게 1798년과 1858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되어왔는데, 전자는 유탉일과 조정화에 의해, 후자는 안현주와 규장각도 서목록에 의해 언급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판본을 1798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大學章句大全』에 붙어 있는 어제서 때문인데, 이 어제서가 1758년에 쓰여졌으며, 그렇다면 최소한 이 서문이 쓰여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판본이 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 판본의 간행연도를 1798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이다.

두 번째는 『大學章句大全』에 찍힌 시강원 도장들에 근거해서인데, 이 판본에 찍혀 있는 시강원 도장들은 옥영정의 구분에 의하면 시강원(1)과 (2)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도장이 주로 찍혀 있는 판본은 1618년에서 영조연간에 간행된 판본이 많은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858년은 너무 시기가 늦은 것 같고 그 보다는 영조연간에 가까운 1798년이 이 판본의 간행연도일 가능성이 더 높다.³¹⁾ 이러한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 글에서는 무오 5월을 1798년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31) 옥영정, 侍講院 藏書의 變遷과 書誌的 研究(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5), pp.123~130.

4) 신축오월영영중간(辛丑五月嶺營重刊)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이 간지본은 『大學章句大全』(규증518)에서만 보이고 『中庸章句大全』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판본의 간년추정에 관해서는 1781년 간행과 1901년 간행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필자는 이와는 달리 1841년으로 간행연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1781년과 1901년의 간행설은 각각 유탁일과 조정화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는데,³²⁾ 실제 이 판본의 자형이나 지질(紙質), 판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간행시기가 20세기 초반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다. 또한 판이 기존의 경상감영에서 간행하던 『大學章句大全』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서 조정화의 주장처럼 판자를 새로 새겨서 간행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1798년에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오본(戊午本)에서는 여전히 기존에 경상감영에서 사용하던 판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판본을 이보다 연대가 빠른 1781년으로 잡으면 판본의 선후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글에서는 이 판본의 간행연도를 1841년으로 추정하였다.

5) 무자신간영영장판(戊子新刊嶺營藏板)

이 간기 역시 대학과 중용 모든 판본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전적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모두 1828년에 경상감영에서 개간한 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³³⁾

이 판본은 앞서 언급한 경진년에 내각에서 개간한 판본처럼 정유자를 저본으로 복각한 것이며, 경진신간 내각본과는 8년의 터울을 두고 각기 서울과 경상도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6) 임술계춘영영중간(壬戌季春嶺營重刊)

이 간기가 있는 판본은 모두 2종인데, 이는 대학과 중용 모두 언해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판본의 간기에 관해서는 1802년과 1862년 간행이라는 두 가지 언급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후자의 주장을 따르고자 한다.³⁴⁾ 그 이유는 1808년에 이미 경상감영에서 『大學諺解』와 『中庸諺解』를 간행했다면, 굳이 20년 후인 1828년에 정유자를 저본으로 하는 『大學諺解』와 『中庸諺解』를 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판본의 행자수(行字數)는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10행17자나 10행19자가 아니라 12행23자인데, 이는 곧 한 면에 글자를 많이 넣음으로써 최대한 인쇄에 소요되는 종이와 판자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32) 유탁일, “嶺營刊行 木記本七書 刊年攷,” 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부산: 세종문화사, 2001), pp.119~125.

조정화, “朝鮮朝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書誌的研究,” 書誌學研究, 제2집(1987), p.297.

33) 유탁일, “嶺營刊行 木記本七書 刊年攷,” 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부산: 세종문화사, 2001), pp.115~119.

조정화, “朝鮮朝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書誌的研究,” 書誌學研究, 제2집(1987), pp.302~303.

34) 1802년과 1862년 간행 주장은 각기 유탁일, 조정화의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전적 연구에서 언급된 것임.

3. 其他地域

경기지역과 경상지역 외에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판본을 간행한 지역은 북한지역과 전라지역이 있다. 북한지역은 함경, 함흥, 영변 등지에서 각각 『大學章句大全』과 『中庸章句大全』을 간행하였으며, 전라지역은 전주에서 방각본 대학, 증용 판본이 간행되었다.

북한지역에서는 함흥부, 함경감영, 영변부 등지에서 각기 『大學章句大全』과 『中庸章句大全』 1종씩 간행되었는데, 이 중 ‘만력40년’이라는 간기가 있는 판본은 『中庸章句大全』 뿐이다. 그러나 이 판본은 원래 『大學章句大全』과 한 질로 인출되었으나 간행사항은 『中庸章句大全』의 권말 부분에만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지역에서는 『大學章句大全』, 『大學諺解』, 『中庸章句大全』, 『中庸諺解』 등 모든 한문본과 언해본의 대학, 증용 판본이 1종씩 간행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권말에 ‘세경오중춘개간전주부하경용장판’(歲庚午仲春開刊全州府河慶龍藏板)이라는 목기가 있어서 같은 곳에서 같은 해에 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각 판본에 관한 간년추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력사십년함흥부개간(萬曆四十年咸興府開刊)

국립도서관본 『中庸章句大全』(한09-나9)의 뒤에 있는 ‘만력사십년함흥부개간’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간지 간기라고 말할 수 없다. 간지표시가 간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본을 여기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이와 매우 유사한 판식과 자형(字形)이 있는 『大學章句大全』의 간기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大學章句大全』(규중550)에는 간행사항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러나 만력40년에 함흥부에서 간행된 『中庸章句大全』과 그 글자의 형태나 일반적인 판식사항들, 그리고 판각의 세부적인 면에서 너무나 유사하다. 따라서 이 둘은 같은 곳에서 같은 시기에 한 질로 인출되었으나, 간행사항은 『中庸章句大全』에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의 간행연도는 간지로 표기된 다른 판본과 달리 확정지을 수 있는데, 만력40년 즉 1612년이 이 판본이 간행된 시기이다.

2) 병오맹추함경감영개간(丙午孟秋咸鏡監營開刊)

이 간기는 『大學諺解』, 『中庸章句大全』, 『中庸諺解』의 세 판본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함께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大學章句大全』 판본도 1종이 있다. 이 판본의 간행연도는 1726년으로 추정되는데, 그 근거는 책판목록상의 기록에 의해서이다. 1750년에 작성된 諸道冊版錄에는 함경감영에서 대학과 증용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으로 미루어 1750년 이전에 함경감영에서 대학과 증용 판본을 인출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간지 상으로 병오(丙午)년이 1726년에 해당하므로 현존하는 이 실물들이 이 시기에 인출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물론 이보다 60년이 빠르거나 늦은 1666년과 1786년도 가능하며, 실제로 규장각 도서목록에는 이 판본의 간행연도를 1666년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⁵⁾ 그런데 1666년도와 비슷한 시기에 인출된 다른 판본을 살펴보면 모두 초기 명판 복각본의 특징인 본문에 구두점이 찍혀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으나, 이 판본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1666년에 판각된 것 같지는 않다.

한편, 이 시기에 함께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본 『大學章句大全』(규중 552) 판본이 1종이 있는데, 글자의 형태나 판식사항들, 그리고 광곽의 크기로 미루어보아 이 『大學章句大全』은 『中庸章句大全』과 한 질로 인출되었으나 간행사항은 『中庸章句大全』에만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을축사월영변부개간(乙丑四月寧邊府開刊)

이 간기가 있는 판본은 규장각 소장의 『大學章句大全』(규중542)과 『中庸章句大全』(규중1723)에 하나씩 있다. 이 판본은 1745년에 간행된 것들로 추정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책판목록상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영변에서 대학, 중용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는 기록은 1778년에 작성된 各道冊版目錄에서 처음 나타난다.³⁶⁾ 그리고 1778년 이전에 가장 가까운 간지(干支) 을축(乙丑)은 1745년인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大學章句大全』과 『中庸章句大全』이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근거는 『大學章句大全』에 찍혀 있는 장서인(藏書印)이다. 이 판본에는 '시강원'(侍講院)이라는 인기(印記)가 있는데, 옥영정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강원 도장은 주로 1746년에서 1798년에 간행된 서적들에서 주로 찍히는 도장으로서 대체로 이 판본의 간행연도로 추정되는 1745년과 시기가 비슷하다.³⁷⁾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이 판본은 1745년에 영변부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35) 서울대학교도서관,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서울 : 동 도서관, 1982), p.58.

36) 물론 그 이전에 작성된 책판목록들인 1674년의 『攷事撮要』나 1734년의 『攷事撮要』에 『中庸諺解』라는 서명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언해본이며, 한문본 대학, 중용은 1778년에 작성된 『各道冊版目錄』에 처음 나온다.

37) 이 판본에 찍힌 도장은 옥영정의 연구에 따르면 '시강원(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도장은 주로 1746~1798년도에 간행된 서적에서 많이 발견된다. 옥영정, 侍講院 藏書의 變遷과 書誌의 研究(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5), pp.121~122.

4) 세경오중춘개간전주부하경용장판(歲庚午仲春開刊全州府河慶龍藏板)

이 간기가 있는 판본은 원광대 소장의 『大學章句大全』(148.18551ㄴ)과, 규장각 소장의 『大學諺解』(규745) 및 『中庸章句大全』(규중629), 그리고 개인 소장의 『中庸諺解』 등 모두 4종이 현존하고 있다.

이 판본의 간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크게 두 가지의 학설이 존립하고 있는데, 1810년에 간행됐다는 주장과 1870년에 간행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처럼 분분한 주장에 따라 이 판본에 대한 각 대학도서관의 목록에서의 간년 추정도 일정치 않은 듯한데, 어떤 곳에서는 이 판본을 1870년에 간행된 것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1810년에 간행된 것으로 서로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판본이 1810년에 간행되었다고 추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책판목록상의 기록에 의해서인데, 1840년에 작성된 各道冊版目錄에 전주사판(全州私版) 『大學大全』, 『大學諺解』, 『中庸大全』, 『中庸諺解』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1840년 이전에 전주에서 개인이 출판해낸 대학, 중용 판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전주에서 개인이 출판한 다른 판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판본이 각기 ‘세경오중춘개간전주부하경용장판’이라는 간기가 있는 판본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안현주의 논어 판본연구와 권희승의 호남 방각본 연구에서 언급된 바이다.³⁸⁾

이상으로 간지로 표기된 간기가 있는 판본을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간행연도를 추정해 보았다. 그러나 간행연도 추정에 있어 확정지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판본도 없지 않으며, 지질이나 글자의 형태 혹은 판식의 형태와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간행연도를 추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

V. 結言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간행·유포된 대학 판본 가운데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현존본에 대해서 그 간행연도를 추정해 보았다.

그리하여 조사대상이 된 판본은 한문본 판본 13종과 언해본 판본 5종으로 모두 18종의 판본을 선정했는데, 이 중에는 간기가 확실하게 표기되어 있는 판본이 15종이며 간기가 직접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중용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같은 혹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8)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 의 板本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2), pp.31~32.
권희승, 湖南坊刻本에 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1981), pp.22~24.

판본이 3종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간지본 판본의 간행연도 추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干支本 大學 諸板本の 刊年推定

區分	板種	刊行處	干支	推定刊年	
漢 文 本	京畿	明板再覆刻	成均館	丙寅	1686
		明板再覆刻	成均館	己酉	1789
		丁酉字覆刻	內閣	庚辰	1820
		新刻	[武橋]	[甲戌]	1874
	慶尙	明板再覆刻	慶尙監營	乙丑	1745
		明板再覆刻	慶尙監營	庚辰	1760
		明板再覆刻	慶尙監營	戊午	1798
		明板再覆刻	慶尙監營	辛丑	1841
		丁酉字覆刻	慶尙監營	戊子	1828
	北韓	明板覆刻	[咸興府]	[萬曆40]	1612
明板再覆刻		[咸鏡監營]	[丙午]	1726	
明板再覆刻		寧邊府	乙丑	1745	
全羅	明板再覆刻	河慶龍	庚午	1810	
諺 解 本	京畿	丁酉字覆刻	內閣	庚辰	1820
	慶尙	丁酉字覆刻	慶尙監營	戊子	1828
		新刻	慶尙監營	壬戌	1862
	北韓	訓鍊都監字覆刻	咸鏡監營	丙午	1726
	全羅	戊申字覆刻	河慶龍	庚午	1810

이 연구에서는 대학 판본 뿐 아니라 중용 판본까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간년추정을 시도 하였는데, 이는 대학과 중용이 비교적 분량이 적어 함께 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러는 대학 판본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간기가 중용 판본에 보이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간년 분석은 크게 간행지역별로 경기지역, 경상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으며, 각 지역별로 간행처, 간행연도, 간행된 판본, 그리고 간행연도 추정에 관한 기존의 여러 주장과 연구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위의 표와 같이 각각의 판본에 관한 간행연도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최선의 추정일 뿐 확정은 아니다. 간지로 간기가 새겨진 판본의 간년추정은 일반적으로 초쇄본(初刷本)이 지니고 있는 지질(紙質)이나 자형(字形), 그리고 판식의 형태 등과 같은 주로 판본의 형태적인 특징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쇄본(後刷本)의 경우는 정확한 간행연도를 추정하기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 두며, 이 점 사계의 참고가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송정숙. 朝鮮朝에 있어서 四書의 수용과 전개 : 「大學」과 「中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4.
- 심우준. 日本訪書志. 경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2.
- 옥영정. 侍講院 藏書의 變遷과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5.
- 유태일. 嶺南地方 出版文化論攷. 부산 : 세종출판사, 2001.
- 정형우.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行 廣布.” 東方學志, 제63집(1989).
- 조정화. “朝鮮朝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2집(1987).